

강의 계획서

강좌명		다정한 글쓰기	강사명	김경은
강의 목표		<하반기-다정한 글쓰기>는 사진, 픽토그램, 상장, 홍보 전단지 등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가 진지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부담을 덜어내고 누구나 즐겁고 유쾌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임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다양한 미디어가 접목된 글쓰기를 경험하여 문학 창작과 소비의 다양성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준비물		필기구	재료비	
일자	세부 강의 내용			비고
9. 4.	<읽기가 먼저일까, 쓰기가 먼저일까?> 그간 우리가 갖고 있던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오해를 덜어내고 글쓰기란 활자를 도구 삼아 '나를 표현 하는 일'임을 알자. *창작 실습: 공통된 사진을 보고 즉흥 글쓰기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9. 11.	<글이 나를 쓰는가, 내가 글을 쓰는가?> 글쓰기를 따르고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여기면 쓰기가 어려워진다. 글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나의 마음과 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자. 글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창작 실습: 나만의 '특별한 이력서' 써보기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9. 18.	<글 쓰는 법이란 세상에 없다 - 사진시 창작 교실> 글을 쓰기 전 작법을 보려하는 것은 수영을 하려고 수영책을 보는 것과 같다. 정해진 글쓰기의 방법이란 것은 없다. 내 마음의 소리와 가장 가깝게 쓰는 것이 유일한 작법이다. *창작 실습 : 사진시 창작 실습, 자신의 마음이 가는 일상 사진을 통해 짧은 시를 만들어내자.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9. 25. 휴강
10. 2.	<글은 곧 '나'다> 글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글이란 내 마음과 내 뜻을 전달하는 일이다. 나는 얼마나 글을 '나 스럽게' 쓰고 있는지 바라보자. *창작글 공유: 창작한 사진시를 함께 공유하며 서로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기.			수강생 창작 글 낭독 및 합평, 강의 10. 9. 휴강
10. 16.	<글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이다 - 사진동화 창작 교실> 글을 쓰는 것은 바로 나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드러내는 일이다. '나'를 소재 삼아 글을 써보자. *창작 실습: 사진동화 창작 실습, 나처럼 여겨지는 존재를 의인화하여 짧은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10. 23.	<글쓰기는 나의 상처를 드러내 타인을 위로하는 일> '나'의 삶과 상처와 기억을 머금은 글은 나를 위로함을 넘어 타인을 위로한다. 남을 위해 글을 쓰지 말자. 나를 위해 글을 쓰자. *창작글 공유: 창작한 사진동화를 함께 보며 서로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기.			수강생 창작 글 낭독 및 합평, 강의
10. 30.	<내가 걸어다니는 길에 나의 이야기가 널려있다- 사진 에세이 창작교실> 글감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내가 움직이고 숨쉬는 곳에서 모든 글이 탄생한다. *창작 실습: 사진에세이 창작 실습 - 걸어다니는 길에서 늘 보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써보자.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11. 6.	<소재는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어 진다’> 소재를 일부러 찾으려 하면 쉽지 않다. 소재는 글을 쓰려고 마음 먹은 자에게 자석처럼 다가와 붙는다. *창작글 공유 : 창작한 사진 에세이를 보며, 각자가 늘 겪는 일상을 소개하고 공유하자.	수강생 창작 글 낭독 및 합평,강의
11. 13.	<같은 소재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인다 - 픽토그램 에세이 창작교실> 특별하고 신선한 글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으면 특별한 글이 나온다. *창작실습 : 주변에서 눈길이 가는 픽토그램을 통해 나의 이야기로 바꾸어 재탄생하기.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11. 20.	<글의 특별함은 바로 ناد움에서 나온다> 모든 예술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나를 얼마나 깊고 넓게 드러내느냐가 관건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자. 글을 통해 나의 특별함을 보여주자. *창작글 공유 : 창작글을 함께 보며 작가로서의 화두로 가득한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수강생 창작 글 낭독 및 합평,강의
11. 27.	<알고보면 우리는 늘 ‘글’을 쓰고 있었다 - 전단지 에세이 창작교실> SNS, 홍보글, 설명서 등 알고보면 우리 글을 늘 쓰고 읽으며 살고 있다. 나의 글을 새로운 형식에 실어 내보내보자. 형식만으로도 글은 새로워진다. *창작실습: 학원 전단지를 자신을 드러내는 에세이로 재탄생 시켜보자.	강의 및 수강생 창작 실습
12. 4.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다양함 형식의 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작가에게 고정된 방식과 틀은 없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 글쓰기다. *창작글 공유: 창작한 전단지 에세이를 함께 보고, 글쓰기의 형식에 대해 생각해보기.	수강생 창작 글 낭독 및 합평,강의
12. 11.	<글쓰기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작가가 하는 일은 남을 즐겁게 하는 일이 아니다. 글을 쓰는 나, 삶을 살아가는 나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강의 및 그간의 작품 리뷰
※강의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상북도교육청 상주도서관장 귀하		